

김정한의 미완성 장편소설 〈農村歲時記〉 연구

최 미 진*

차 례

- | | |
|--------------------------|----------------------------|
| I. 들머리 | 2. 이원적 대립 구조와 서술자의 권위적 목소리 |
| II. 『慶南公論』과 〈農村歲時記〉 | IV. 마무리 |
| III. 〈農村歲時記〉의 서사적 성격과 특징 | |
| 1. 자전적 성장소설로서의 면모 | |

I. 들머리

김정한은 역사적 격변기를 온 몸으로 맞부딪혀 나간 올곧은 작가이다. 그의 강직한 성품과 지난한 삶의 구비들은 작품들 속에 고스란히 옮겨져 지금껏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1936년 『조선일보』에 발표된 『사하촌』은 1932년 양산 농민봉기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후 쓴 『그물(罟)』을 모태로 한 작품으로서 당시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작가 김정한의 문학사적 위상을 뚜렷하게 정립시킨 소설은 1966년 『모래톱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59세의 작가가 25여 년의 절필기간을 단숨에 뛰어넘어 발표한 소설이다. 그것은 당시 문단에서 이례적인 현상이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제

* 부산대학교 강사

공하였다. 4월혁명과 5·16 쿠데타를 거치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던 문단은 1966년 『창작과 비평』의 창간에 즈음하여 발표된 작가의 『모래톱 이야기』에 주목했다. 더욱이 작가의 문학적 행보가 그의 삶과 성품을 닮아 불연속선을 그리며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작가의 세계관과 실천과 창조력의 승리”¹⁾로 평가되기에 충분했다. 그만큼 요산의 문단 복귀는 1970년대 민족문학운동을 선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작가 개인의 삶과 문학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김정한의 문학적 위상과 그들이 넓을수록 의구심을 더하는 일은 25여 년간의 절필기간이다. 이 시기는 실상 창작활동의 공백기가 아니었다. 조갑상은 김정한의 육필 목록과 원고를 바탕으로 <김정한 소설작품 목록>을 정리하여 연구한 바 있다. 여기에서 절필 기간 동안 요산이 6편의 소설과 6편의 콩트뿐만 아니라 1편의 희곡을 창작하였음을 밝혔다.²⁾ 그는 광복기에 쓰여진 소설 『獄中回甲』과 『설날』이 진보적 민족주의 지도자의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면, 1950년대에 창작된 『병원에서는』, 『農村歲時記』, 『厄年』은 과거 작품들에 비해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김정한 특유의 리얼리즘적 고발의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모래톱 이야기』의 복귀를 예비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결국 김정한의 소설에 대한 농민문학, 리얼리즘문학, 민족문학으로서의 재평가를 재정립한 견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한이 절필기간에 대해 끝까지 침묵한 까닭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

최원식은 이미 절필 기간의 창작활동이 “요산문학의 생략점”을 확대시킨다는 사실을 토로하면서 실존적 감각의 회복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침묵한 “생략점”은 자기 인식의 치열성에 기초해야 하는 것인 만큼 “고통스럽지만” “의식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³⁾ 이러한 “요산문학의 생략점”은 최근 박태일이 김정한의 희곡 『인가지』를 친일매체에 발표한 친일작품으로 규정지음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⁴⁾ 이러한 연구 결과는 김정한의 문학작품 자체

1) 김종철, 『저항과 인간해방의 리얼리즘』, 『韓國文學의 現段階』 Ⅲ, 백낙청·염무웅 엮음, 창작과비평사, 1984, 82~120쪽.

2) 조갑상, 『김정한 소설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1991, 6~10쪽.

3) 최원식, 『90년대에 다시 읽는 요산』, 『김정한』, 새미, 2002, 55쪽.

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절필기간에 묶인 시기 김정환의 글들은 희미하게 윤곽만 드러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農村歲時記>를 연구대상으로 삼아⁵⁾ 그것의 서사적 특성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절필기간 김정환의 문학세계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스스로 절필기간으로 묶여 팔호 친 요산의 문학활동의 빈틈을 채워나가는 작업인 동시에 전후기 문학작품의 상관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II. 『慶南公論』과 <農村歲時記>

『農村歲時記』는 미완성 소설이다. 이 소설은 『慶南公論』 제26호에서 제32호까지, 그러니까 1955년 2월부터 1956년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연재되다 중단되었다.⁶⁾ 그러나 여느 소설과 달리 연재중단의 시기와 사유를 정확하게 밝혀두

-
- 4) 박태일, 『경남·부산 지역문학연구1』, 청동거울, 2004, 126~153쪽.
- 5) 『農村歲時記』의 전모는 이순옥이 『지역문학연구』 제9호(경남·부산지역문화회, 2004.)에서 발굴·소개한 바 있다. 이순옥, 『1950년대 김정환의 미발굴 장편소설 『農村歲時記』』, 위의 책, 232~241쪽. 연구자는 『慶南公論』에 연재된 작품을 주된 텍스트로 삼으면서 요산의 육필원고 4회분과 『지역문학연구』 제9호 「발굴자료 農村歲時記」를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6) 『樂山 作品目錄』에는 “農村歲時記(1~7回), 慶南公論 No.26~32, 別途保管”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갑상은 이러한 『樂山 作品目錄』와 김정환의 육필원고를 참조하여 이 소설이 1954년에서 1955년 사이에 7회에 걸쳐 발표되었다고 보았다.(조갑상, 앞의 글, 9쪽.) 그러나 『慶南公論』 제26호에서 제32호까지와 『慶南年鑑』 제2호를 통해 확인한 결과, 『農村歲時記』는 1955년에서 1956년 사이에 6회에 걸쳐 발표되었다. 이러한 발표시기와 발표횟수의 혼란은 한편으로 기억에 의존한 작가의 기록이 부정확했을 가능성에서 연유한다. 발표횟수가 정확하다면 『農村歲時記』는 6회 연재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연재횟수가 분명하다면 『慶南公論』 제33호까지 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慶南公論』 제34호부터 49호까지 확인한 결과, 『農村歲時記』뿐만 아니라 김정환의 소설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慶南公論』 제33호를 구할 수 없는 까닭에 쉽게 단정 내리기 힘들다. 다만 자술 『樂山 作品目錄』이 작가의 기억에 의존한, 허점이 없지 않은 기록들이라는 점에서 『農村歲時記』가 제29호에 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작가가 놓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慶南公論』의 발행일이 잘못 기재된 까닭에서 연유한다. 당시 발행일은 단기(檀紀)로 표기되었는데, 단기 4288

지 않았다.⁷⁾ 『慶南公論』 제34호(1956년 5월 1일 발행)에서 편집자는 “正副統領選舉事務執行要領을 附錄으로하여 그 面數가 차”고, “執筆하는분들 舉皆가 敎鞭을 잡은분들”인데 “試驗期인 까닭에” “金廷漢씨의 『農村歲時記』가 “빠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환은 당시까지도 편집인에게 연재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셈이다. 하지만 김정환의 글은 4월혁명 이전까지 『慶南公論』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결국 『農村歲時記』는 의문에 가득 찬 미완성 소설로 남겨진 셈이다. 이러한 의문점들을 김정환이 『農村歲時記』를 집필할 당시의 근황을 통해 접근해 보기로 하자.

자술 『樂山 作品目錄』(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요산생가 소장자료)⁸⁾에 따르면 1950년대 김정환의 작품활동은 주로 지역 신문과 잡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논설과 수필들을 제외하더라도 소설이 5편, 콩트가 4편에 이른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작품을 가장 많이 발표한 매체는 『慶南公論』이다. 콩트 『妻侍下』와 『누가너를 애국자라더냐』, 그리고 소설 『農村歲時記』가 바로 『慶南公論』을 통해 발표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정환이 선택한 매체인 『慶南公論』이 신문도 문예지도 아닌 도 기관지였다는 점은 매우 이채롭다.

『慶南公論』은 1952년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처음 간행된 경상남도 기관지이다. 발행처는 경상남도 공보부이며, 발행인은 현직 경상남도 도지사, 그리고 편집인은 공보부 산하 공무원이다. 발행인과 편집인은 공무원 인사이동 시기와

년 동년에 발간된 제26호에서 제31호 사이에 발행일이 혼선을 빚고 있었다. 제26호에서 제28호까지는 단기 4287년으로 표기되었다가 제29호에 이르러서야 단기 4288년으로 발행일을 제대로 조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발행일의 오기는 발표시기를 잘못 가늠하게 한 원인일 수 있다.

- 7) 이것은 이주홍의 경우와 사뭇 대조된다. 이주홍은 『慶南公論』 제35호에 장편소설 『少女가 있는 風景』을 연재한다. 그러나 첫회를 끝으로 연재가 되지 못하자 제38호 『편집여목』에서 “筆者の私情으로 말미암아” 연재가 중단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글이라는 것이 붓으로 써지는 것이 아니고 精神에서 만드러지는까닭에 먼저 精神을 간추르지 않고는 中斷된作品을 繼續하기 어려운터이니 아마 氏가 亦是 그러한데 由因된것같”다는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 『편집여목』, 『慶南公論』 제38호, 1956.11, 80쪽.
- 8) 요산의 자필 『樂山 作品目錄』과 『農村歲時記』 4회 연재 육필원고는 경성대학교 조갑상 교수의 도움을 얻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맞물려 바뀌고 있는데, 그것은 『慶南公論』이 정부 산하 기관지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러나 『慶南公論』은 도민에게 도정(道政)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현황을 알리는 데에만 치중한 매체는 아니었다. 상당한 지면을 도민의 생활 개선과 교양 함양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농법이나 위생적 환경 사업들을 소개하여 생활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하면 시, 수필, 풍트, 소설 등을 통해 도민의 교양과 덕성을 함양하는 데 애쓴 흔적이 뚜렷하다. 이를 통해 『慶南公論』이 행정기관의 기관지일 뿐만 아니라 종합 잡지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

아울러 『慶南公論』은 지역 월간지이다. 그것은 짧은 시기에 다양한 분야의 많은 원고를 필요로 한다. 『慶南公論』은 기관지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듯하다. 『編輯後記』에 편집인은 도지의 기획에서부터 인쇄에 이르는 전과정을 도맡아 처리해야 할 상황에 있었다. 도청의 지원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잡지 출판에 관련된 자금 확보, 인쇄소 선정뿐만 아니라 원고 청탁에서부터 송고 확인, 교정까지 혼자 해내야 했던 것이다.¹⁰⁾ 특히 “執筆陣이 全無하다싶이” 한 상황에서 다양한 작가층을 수렴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듯하다.¹¹⁾ 그것은 당시 경남·부산 지역에서 활동했거나 활동하는 많은 작가들이 『慶南公論』에 대거 참여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¹²⁾

9) 같은 시기 경상북도 공보과에서 발행한 『道政月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매체이다.

10)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월간지인 『慶南公論』이 결호가 생겼거나 합본으로 묶이는 등 발행이 누차 늦어진 데 대한 편집인의 변(辨)으로 『編輯後記』에서 종종 토로되고 있다.

11) 『慶南公論』의 『編輯後記』를 살펴보면, 원고 수집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부분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제40호에서는 “政治, 經濟, 行政, 文化, 各分野에 걸쳐서 學界를 中心으로” 원고 수집을 하겠다고 했는가 하면, 제41호에서는 “一般公務員”에게 발표지면을 할애하겠다고 하고, 제49호에서는 “讀者 原稿를 모조리 실을 예정”이라고까지 밝히고 있다. 그것은 『慶南公論』이 고정 집필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월간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원고 수집에 남다른 어려움이 따랐음을 드러낸다.

12) 『慶南公論』의 문예면을 살펴보면, 우선 시에서는 유치환, 김춘수, 조 항, 손동인, 이경순, 김수돈, 구연식, 정영태 등이 눈길을 끈다. 그리고 소설에서는 이주홍, 오영수, 정진업, 천세옥, 김석호, 안영태, 정창범, 손동인 등이 김정환과 더불어 작품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수필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인들

『慶南公論』의 문예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준 작가는 향과 이주홍이다. 그는 『慶南公論』이 창간된 이래 지속적으로 작품을 써왔다. 『慶南公論』의 거의 매호마다 시, 동시, 소설, 야사, 수필 등 다양한 분야의 글들을 어김없이 만날 수 있다. 그만큼 이주홍은 『慶南公論』 문예면의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인 편집인은 작가층 확보에 고심하고 있었지만 실상 문학예술 분야의 사람들과 친분이 두터웠을 리 만무하다. 그렇기에 편집인은 문예면의 원고 청탁을 고정 작가와 다름 없었던 이주홍과 의논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주홍은 당시 지역문단에서 명망이 높았던 까닭에 작가층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듯하다. 그만큼 『慶南公論』에 참여한 작가들은 이주홍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한 또한 이주홍과 함께 부산에서 동인지를 내거나 같은 문학단체에 관여했을 만큼 두터운 친분을 쌓아왔던 지우였다.¹³⁾ 때문에 김정한도 이주홍의 요청으로 『慶南公論』에 함께 참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겠다.

하지만 김정한의 문학활동은 작가 개인의 정황을 무시할 수 없다. 당시 김정한이 『慶南公論』을 통해 문학활동을 시작한 것은 생활이 안정된 까닭과 어느 정도 맞물린다. 1950년대 김정한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의 고초를 제외하면 부산대학교 교수로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았다. 1950년 초 부산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된 그는 1954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강사로 잠시 전락했지만, 다음해 3월에 조교수 자격을 되찾고 7월에는 부교수로 승진한다. 1958년 경상남도 도지(道誌) 편찬위원으로 위촉될 만큼 그는 교수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었다. 이렇듯 한국전쟁을 겪은 후 그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창작활동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이주홍의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여유를 지니고 있었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慶南公論』에서 김정한의 작품활동은 어떠했는가. 발표된 작품이 앞서 밝힌 세 편에 불과했을까. 『慶南年鑑』은 이러한 의문을 풀어줄 단서들을 제공한다.

이외에 임하수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만큼 『慶南公論』의 문예면은 한국전쟁기를 거치면서 지역출신 작가들에 의해 주로 채워졌다.

13) 김정한, 『저 세상에선 우리를 겁주지 않겠지』, 『황량한 들판에서』, 황토, 134~138쪽.

(1)

小説에는文學建設 當時부터執筆하던金廷漢氏의 『病院에서』와 『慶南公論』(慶南道機關誌)에發表한 最近作數編을 들수있고¹⁴⁾

(2)

樂山 金廷漢氏는 慶南公論誌 第二十一號에 短篇小説 『사라진 사나이』를發表한以後 多年間 構想中에 있던 長篇小説 『農村 歲時記』를 數個月前부터執筆하기 始作하여 現在 그 脫稿를 보아 第二十六號慶南公論誌에 第一回를連載發表하게 되는 環刊 釜日紙에 數次에 걸쳐 評論을실였으며 最近(一月九日附)發表된 『文學精神의 貧困』은 現實에 立脚해있는 文學人의情神에 一針을 주었다. 短篇集을出刊準備中에 있다.¹⁵⁾

(1)은 1954년 4월 15일에 발행된 『慶南年鑑』 창간호에서 인용한 대목이다. 여기에서 김정환은 『慶南公論』에 “最近作數編”을 발표했다고 밝히고 있다. 『慶南年鑑』의 발행시기를 고려할 때 “最近作”은 1953년 2월에 발표된 『처시하』와 1954년 4월에 발표된 『누가 너를 애국자라더냐』 두 편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最近作數編”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김정환이 『慶南公論』에 발표한 작품은 더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니까 『慶南公論』이 창간된 1952년에서 1954년 사이 최소한 한두 편의 소설을 더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러한 정황은 (2)에서 보듯 “慶南公論誌 第二十一號에 短篇小説 『사라진 사나이』를 發表”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사라진 사나이』는 『慶南公論』 21호(1954년 7월)¹⁶⁾에 발표된 단편소설로 자술 『樂山 作品目錄』에도 누락되어 있는 작품이다. 작가가 발표했던 작품을 『樂山 作品目錄』에 꼼꼼하게 기록해두었다고는 하나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도 없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김정환이 1950년대에 『慶南公論』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작품활동을 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農村歲時記』는 이러한 단편소설 “數編”을 창작한 이후 발표된 김정환의 최초의 “長篇小説”이다. 조감상은 『樂山 作品目錄』과 4회분의 원고를 토대로 『農

14) 慶南年鑑編纂會, 『慶南年鑑』 창간호, 議員俱樂部社, 1954, 129쪽.

15) 慶南年鑑編纂會, 『慶南年鑑』 第二號, 慶南年鑑編纂會, 1955, 50쪽.

16) 『사라진 사나이』, 『경남공론』 21호, 69~79쪽. 이 소설은 전쟁기 피난지 부산 광복동의 풍경과 피난민의 삶을 담고 있다. 다른 자리를 빌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農村歲時記』를 “중편소설”로 규정한 바 있다.¹⁷⁾ 그러나 이 소설은 (2)에서 보듯 “多年間 構想”과 “數個月” 동안의 “執筆”을 거쳐 발표된 요산의 첫 장편소설이다. 『農村歲時記』는 작가뿐만 아니라 편집인이 오랜 시간 준비과정을 거쳐 기획된 것이었다. 김정환이 1950년대에 이미 장편소설로 전환하려 했다는 사실은 안정된 생활 여건과 “數編”의 단편소설 창작 경험을 토대로 작가적 역량과 깊이를 두루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그것은 창작에의 열의만큼이나 문단 복귀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農村歲時記』는 “確實히 새로운 摸索의 世界로 우리를 引導”¹⁸⁾할 것이라는 독자들의 믿음을 뒤로 한 채 미완에 그치고 만다.

그렇다면 『農村歲時記』가 미완에 그친 까닭은 무엇일까? 더욱이 『農村歲時記』를 비롯해 작품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작가 스스로 “25년간의 절필기간”으로 간주한 것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작품 發表만으로 말미암아 拷問이나 投獄을 當한 例는 듣지 못했으나 檢閱에 依한 削除와 自進伏字는 恒茶飯事였다. 事實은 筆者도 『寺下村』 以前에 檢閱當局의 削除德分으로 『救濟事業』이란 短篇을 이름만 『新階段』(?)에 發表한 일이 있었다. 『寺下村』에도 勿論 伏字가 있고 削除된 部分이 있다. 그後의 몇篇이 거의 다 伏字가보기싫게 들어있다.

이렇게 伏字를 作品속에 써 오던 나는 結局 小說에서 차츰 붓을 빼게 되었다. 小說을 쓸 勇氣와 興味가 나지않았다. 그 버릇이 解放後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탓인지 아직 作品다운 作品하나 쓰지 못하고 나를 매질하는 친구들이나 나를 文壇에 밀어준 朝鮮日報社에 對해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伏字없는 作品을 한번 써보고 싶은 最近의 心境이다.¹⁹⁾

인용문은 『農村歲時記』 연재를 두 달 앞두고 김정환이 발표한 글이다. 이 글에서 그는 “오늘날까지” “작품다운 作品하나 쓰지 못하고” 있으며 “伏字없는 작품을 한번 써보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한다. 그렇다면 당시 창작활동을 작가

17) 조갑상, 앞의 글, 37쪽. 그러나 『農村歲時記』가 장편소설이었다는 사실은 이 소설을 발굴·소개한 이순욱의 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순욱, 『1950년대 요산 김정환의 미발굴 장편소설 『農村歲時記』』, 앞의 책, 237쪽.

18) 『편집여목』, 『慶南公論』 제26호, 1955.2, 126쪽.

19) 『나의 當選時代-檢閱이 무서울 때』, 『朝鮮日報』, 1954.12.6.

스스로 “절필” 기간에 포함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많은 부분 자기검열에서 비롯된 듯하다. “伏字”를 산출했던 외압적인 검열제도는 작가 스스로 검열을 감안한 글쓰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作品다운 作品”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작가의 창작활동에서 고전주의적 입장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²⁰⁾ 그것은 “시시한 소설 나부랭이를 잘못 썼다가 괜히 욕 먹”을 일을 두려워 할만큼 작가적 자괴감과도 연관된다.²¹⁾ 더욱이 작가의 자기검열은 창작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삶의 태도와도 연관되어 있기에 더욱 엄격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農村歲時記』이 미완에 그친 것은 당시 창작활동을 절필기간에 묶어 둘 만큼 엄격했던 작가의 자기검열의 소산일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農村歲時記』은 작가 김정환이 오래간만에 생활의 안정을 찾았고 창작활동을 권유하는 문인들 또한 없지 않아 『慶南公論』을 통해 최초의 장편소설을 기획하여 연재한 소설이다. 하지만 작가는 독자의 바람대로 연재를 끝맺지 못하고 발단 부분 정도를 갈무리했을 뿐이다. 그것은 당시 창작활동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만큼 자기검열이 엄격했던 작가였기에 『農村歲時記』의 연재 또한 쉽지 않았던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작가의 자기검열 자체에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작가의 자기검열은 작가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만큼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닥칠 상처와 고통을 함께 껴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모를 작품 내부로 이끌어내어 고찰해보자. 그것은 『農村歲時記』 자체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Ⅲ. <農村歲時記>의 서사적 성격과 특징

1. 자전적 성장소설로서의 면모

『農村歲時記』는 1920년대 초반 밤식골을 배경으로 유교적 전통주의가 식민

20) 이순옥, 앞의 글, 235쪽.

21) 박태일, 앞의 책, 131쪽.

지 근대화의 격랑 속에서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혼암과 손자 영선에게 초점을 맞춘 이 소설은 짚공차기, 연날리기, 새구멍 덮치기, 널뛰기를 하는 아이들의 놀이 세계와 3·1운동 후 도피한 아들 대신에 며느리 한실덕과 함께 생활을 꾸려나가면서 전통적 유교주의의 상징인 상투를 자르거나 마을 신작로를 닦는 일에 발벗고 나서는 혼암의 행위 변화를 그리고 있다. 여기에는 신식학교와 토지를 둘러싼 작중인물들간의 갈등이 전조되어 있다.

연재된 『農村歲時記』는 미완성 장편소설의 발단 부분이다. 소설의 발단은 앞으로 작품이 전개되어 나갈 바탕으로서의 가정들을 제시한다. 작중인물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이며, 과거와 현재가 어떤 관계로 연결될 것인가를 제시하면서 갈등과 위기의식을 환기시킨다. 그러니까 작품 전체를 가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발단 부분만으로 작가의 소설 전략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전후기 김정한의 작품 세계와 견주어 『農村歲時記』의 성격과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김정한은 전후기에 걸쳐 비판적인 작가의식을 강렬한 어조로 드러내었던 작가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작가의 세계관과 일체화된 삶의 태도가 창작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은 논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삶의 실재와 창작활동이 동체를 형성하면서 비판적인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1928년 울산 대현공립 보통학교에서 조선인 교원연맹 조직을 계획하다 피검되었던 사건을 소설화한 『어둠속에서』, 1932년 양산 농민봉기사건의 체험을 토대로 한 『그물(罟)』이나 『寺下村』, 1939년 전근간 남명학교에서 일인 교장에 대한 불만을 비틀어 표현한 『落日紅』, 1940년 동아일보 동래지국을 맡아 구독자를 모으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피검되었던 체험을 살린 『위치』, 광복 후 좌익계통 문학단체에 가입되었을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獄中回甲』과 『설날』, 한국전쟁 직후 보도연맹에 연루되어 피검되어 감옥살이를 했던 체험에 바탕을 둔 『슬픈 해후』, 자유당 정권과 5·16 군사쿠데타 이후 피검의 경험을 살려낸 『과정』과 『거적대기』 등이 김정한의 삶과 함께 하고 있다. 그만큼 김정han 소설은 상상에만 의존하기 보다 작가의 체험과 혼용된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김정한의 작품세계는 허구적 상상력보다 과거 기억에 의존한 상상력을 창작의 근간에 둔다 하겠다. 과거의 기억에 의한 핏진한 묘사와 서술을 통해 작가의 문학정신을 생생하게 드러내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農村歲時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農村歲時記』은 무엇보다 유년기 작가의 체험을 생생하게 살려 쓴 소설이다. 작중인물들은 작가의 실제 가계(家系)의 인물을 재현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적은 실제 인물의 삶과 유사하다. 이것은 작가의 수필과 연구자들의 방문기와 각종 수상과 견주어 볼 때 쉽게 확인 가능하다.²²⁾

우선 혼암은 김정한의 부친 김기수를 모델로 한다. 부친이 명정학교 설립에 기여한 사실과 혼암이 새버덩 학교에 손자 영선을 손수 입학시키는 점, 유석교(維石橋)라는 다리를 놓는 데 앞장 선 부친과 신작로 건설을 추진하는 혼암의 행적이 모두 일치한다. 그리고 혼암과 부친 모두 농사를 생업으로 삼았던 지주층이었다는 점과 3·1운동에 참여한 이력을 가진 아들을 둔 점 또한 흡사하다. 혼암은 부친의 행적과 거의 일치하는 인물인 셈이다. 그는 유교적 전통주의라는 사상적 세례를 받았으나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일찍 눈뜨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작중인물이다.

이러한 혼암과 대비되는 인물이 남파이다. 남파는 김정한의 증조부를 모델로 한 듯하다. 증조부는 주로 집안 아이들을 위해 개설한 마을의 서당 선생이었다. 이러한 점은 남파가 한학에 출중한 편은 못되나 마을의 서당선생으로 권위를 지키려 한 사실과 닮아 있다. 더욱이 남파의 친손자 순태와 혼암의 손자 영선이 학습 진도를 달리했다는 점은 증조부를 남파의 모델로 삼았음을 짐작하게 한다.²³⁾ 증조부의 편애와 편견이 남파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남파가 외방지주 고참봉의 마름이라는 점이 다르다 하겠다.

그리고 혼암의 손자 영선은 김정한 자신을 모델로 한 작중인물로 여겨진다. 김정한이 한글을 어머니에게서 배운 사실²⁴⁾은 영선이 어머니 한실택이 읽어준

22) 조갑상, 『시대의 질곡과 한 인간의 명징함-인간 김정한』, 『김정한-대쪽같은 삶과 문학』, 새미, 2002.; 김정한, 『나의 文學的 回顧-반항의 물결 속에서』, 『文學』 1966년 9월호(1권 5호), 문학사, 1966.; 김정한 대담취재, 『弱者의 설움은 무엇인가?』, 『文學思想』 1973년 10월호.; 김중철, 『저항과 인간해방의 리얼리즘』, 『韓國文學의 現段階』 Ⅲ, 백낙청·염무웅 엮음, 창작과비평사, 1984.; 최원식, 『그 편안함 뒤에 대쪽』, 『민족문학사연구』 3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3.; 김정한, 『洛東江의 파숫군』, 한길사, 1978.; 김정한, 『사람답게 살아가라』, 동보서적, 2000.; 김정한, 『황량한 들판에서』, 황토, 1989.

23) 김정한, 『反骨人生』, 『洛東江의 파숫군』, 한길사, 1978, 79쪽.

한글책 『유충렬전』을 통해 한글을 깨우쳐간 것과 닮아 있다. 어렸을 때 “왜엿놈 꼬웃놈/꼬치(고추)밭에 꼬웃놈”²⁵⁾과 같은 노래를 부른 점은 김정한의 기억과 영선의 행위 속에 똑같이 드러난다.²⁶⁾ 그리고 김정한이 서당에서 또래 학생들보다 학습 진도가 빨랐다는 사실은 영선 혼자 별실을 차지하고 ‘통감’이나 ‘고문진보’를 읽는 대목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부친이 아닌 김정한 자신이 3·1 운동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과 일제에 대한 막연한 저항감을 키운 계기가 다르다. 김정한은 밀주 단속에 적발되어 일본 순사들에게 손찌검을 당하는 어른들을 본 이후 “원수를 갚아야지” 생각하며 유년시대를 보냈다면²⁷⁾, 영선은 3·1운동 후 피신한 아버지의 행적을 캐기 위해 수시로 드나드는 “흔병 앞잡이”들의 존재를 알고서부터다. 이러한 영선의 상황은 유년기 김정한의 행적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農村歲時記』는 김정한 자신의 가계(家系)의 인물을 모델로 하고 유년기 작가의 체험을 형상화한 자전적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자전적 소설은 필립 르죈에 따르면 자서전의 진정성과 소설의 허구성이 접합된 양식이다.²⁸⁾ 그것은 작가-화자-주인공의 유사성이 지켜지는 양식으로 작가의 체험이 ‘그대로 빼어담은’ 경우 뿐 아니라 ‘어렴풋이 닮은 것 같은’ 경우를 포괄한다. 소설에서 작가의 체험의 투영 여부와 투영 정도를 간파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김정한처럼 자신의 체험을 반복적이고 직접적으로 형상화한 경우는 자전적 소설의 넓은 스펙트럼 아래 놓여 있다 하겠다.²⁹⁾

그럴 경우 주목할 만한 점은 자전적 소설이 허구적 규범하에 진정성을 내포

24) “한글(그 때는 언문이라고 했다)은 집에서 주로 어머니에게 배웠다. 서당이란 데 나가기 전의 일이었다. 여섯 살때부터 서당에 나갔다. 하늘 천 따지를 기계적으로 배웠다. 그리고 『동몽선습』…『통감』(資治通鑑)에 들어갔다. 『통감』에 들어가고 부터는 제법 문맥이 통했다.” 『反骨人生』, 위의 책, 78쪽.

25) 『아이들의 세계』(5), 『경남공론』 27호, 82쪽.

26) 『反骨人生』, 위의 책, 77쪽.

27) 『反骨人生』, 위의 책, 78쪽.

28) 필립 르죈, 『자서전의 규약』, 윤진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8, 17~63쪽 참조.

29) 비슷한 예로 박완서를 들 수 있다. 손운권은 이러한 박완서의 작품세계를 자전 소설의 특질과 맥락화에 주목하여 접근한 바 있다. 손운권, 『박완서 자전소설(自傳小說) 연구-상호텍스트 안에서 담화가 변모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2003.

하는 이중적 장르라는 점이다. 르윈이 강조하듯 자전적 소설은 자서전보다 작가가 내면의 개별적 진실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자서전보다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복합성과 모호성이 잘 재현되기 때문이다. 물론 자전적 소설은 작가가 소설을 쓰게 된 계기를 직설적으로 표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서전이 그러하듯 소재가 되는 삶은 엄청난 삶의 굴곡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정승옥은 그러한 점에서 자전적 글쓰기가 자기 삶에 대한 서술의 진실함을 타자에게 설득시키고 더 나아가 자기 삶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숨어있다고 주장한다.³⁰⁾ 나아가 김미현은 작가가 자전적 소설을 쓰는 이유를 작가의 상충된 두 가지 심리, 즉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해받고, 자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과 자신이 드러내는 일에 대한 두려움과 비난 받을 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³¹⁾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한의 문학적 특질, 그러니까 삶과 문학의 유사성은 현실고발적인 문학정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작가 자신만의 숙제가 그늘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農村歲時記』를 기획하면서 작가가 끝내 침묵한 절필 기간의 창작활동이나 세간의 평가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던 작가의 심경이 자전적 소설을 택하게 된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다. 『農村歲時記』가 완성되었다면 작가 나름의 고민을 펼쳐내고 최원식의 지적대로 작가 스스로 실존적 감각을 회복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을 수 있다. 하지만 미완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사실은 작가의 상충된 심리가 창작의 저변에서 지속적으로 힘겹게 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農村歲時記』는 성장소설의 면모를 보여준다. 발단 부분의 이 소설은 혼암과 그의 손자 영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비중은 혼암에게 더 많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심인물은 소설이 전개되면서 영선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덕은이 주장하듯 김정한 소설의 발단은 앞으로 전개될 작품의 사건과 주제가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소재의 세밀한 성질 까지도 이용한다. 이러한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발단 부분은 작품 전체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주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³²⁾ 이러한 특성

30) 정승옥, 『문학으로서의 자서전Ⅱ』, 『인문과학논총』 제7집, 강원대학교, 1999, 109쪽.

31)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168~169쪽.

32) 박덕은, 『김정한의 소설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80, 46~53쪽.

은 『農村歲時記』에서 『유충렬전』이 놓여 있는 자리와 관련되어 드러난다.

(1)

『니가 보니 옳기 아나?』

『인자 재복 알겠던데…………엄마하고 아들하고 피신가는 대목이 어디쯤 인가요?』

영선이는 책을 다시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간신에게 몰려 아버지가 귀양을 가고, 그 화가 가족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자, 소년 유충렬이 자기 어머니를 따라 무서운 피난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어머니에게 들긴 하였지만 자기도 꼭 한번 읽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와 하필 그 대문을 불락할꼬?)

어머니는 속으로만 이상하게 여기면서 책을 펴 주었다.³³⁾

(2)

『엄마!』

영선이는 불이 벌건 아궁이 앞에 도사리며 이렇게 불렀다.

『와?』

어머니는 물 묻은 손을 치맛자락으로 닦으면서, 역시 아궁이 앞으로 왔다.

『안주(아직도) 그놈들이 아배를 잡을락 하는지요?』

영선이는 어머니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래! 와 지낸달에도 도리우찌 썬 놈이 두 놈이나 안 왔더냐? 그놈들이 혼병 앞잡이란긴데, 느 아버니 간데를 몰라서 온통 환장이란다.』

어머니의 말에는 실상은 어떤 의미의 주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나 가리켜 주어!)

영선이는 숫제 무슨 각오나 하는 듯이 입을 비죽하고는, 아궁이를 물끄러미 들여다 보았다. 그리자 문득 또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는 유충렬의 이야기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한 유충렬이가 무한히 부러웠다.

(나도 한분……………!)

영선이는 제법 마음을 가다듬어 보았다.³⁴⁾

이 소설에서 『유충렬전』은 제재를 뛰어넘어 라이트-모티프(leit-motif)로 기능한다. 라이트-모티프는 하나의 문학작품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반복적인 어구나 구절을 의미하며 약간의 변형은 있으나 일련의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

33) 『慶南公論』 제27호, 79쪽.

34) 『慶南公論』 제27호, 81쪽.

는 것이다.³⁵⁾ 『유충렬전』은 『農村歲時記』 제2회 아이들의 세계 (2)~(4)에서 초점 주체 영선의 내면세계와 가장 밀착되어 있는 제재이자 모티프이다.

인용문 (1)에서 영선은 『유충렬전』의 “엄마하고 아들하고 피신가는 대목”만을 찾아 읽는다. 3·1운동 후 부재하는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가 핫옷을 짓는 동안 영선은 『유충렬전』을 읽으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삭이는 것이다. “간신으로 몰려” 귀양을 간 유충렬의 아버지는 3·1운동 후 피신한 영선의 아버지의 상황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선의 상황이 그가 읽고 있는 유충렬의 상황과 오버랩되어 있다 하겠다. 더욱이 영선이 반복적으로 찾아 읽는 대목은 “간신에게 몰려 아버지가 귀양을 가고, 그 화가 가족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자, 소년 유충렬이 자기 어머니를 따라 무서운 피난길을 떠나는 이야기”이다. “하필 이 대문을”을 보는 영선의 행위는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은연중에 알려 줄 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예견하게 한다. 즉 “엄마하고 아들하고 피신가는 대목”은 앞으로 영선에게 닥칠 사건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유충렬전』은 대표적인 영웅소설이다. 권문세가의 아들로 태어난 유충렬이 간신 정한담의 간계로 몰락한 집안과 위기에 처한 국가를 초인적인 능력으로 구출함으로써 부귀공명을 다시 누린다는 이야기이다. 이 소설은 영웅소설의 구조적 동질성을 지니면서도³⁶⁾ 정교한 대응구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³⁷⁾ 소설의 전반부는 정한담에 의해 유충렬이 일방적으로 고난을 겪는 과정이자 가족과 분리되는 과정이, 그리고 후반부는 정한담에 대한 유충렬의 복수를 그리는 과정이자 가족과 재회하는 과정이 드러난다.³⁸⁾ 서사를 추동하는 원리가 고난과

35) 김정자, 『모티프 구조로 본 金廷漢·李周洪 小說의 文體的 特性』, 『어문교육논집』 제8집, 부산대 국어교육과, 1984, 258쪽.

36) 『유충렬전』에 나타난 영웅소설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 ②잉태나 출생이 비정상적이다. ③어려서부터 비범하다. ④기아(棄兒)가 되거나 죽을 고비에 이른다. ⑤구출, 양육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난다. ⑥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힌다. ⑦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하고 승리한다.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296쪽.

37) 서인석, 『古代小說에 있어서의 ‘우연성’ 문제-劉忠烈傳을 중심으로』, 『선청어문』 제10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79, 56쪽.

38) 강상순, 『영웅소설의 형성과 변모양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1과 조병훈·이상구, 『<유충렬전> 작품구조와 역사적 성격』, 『어학연구』 제12권, 순천대 어학연구소, 2001 참조.

복수, 분리와 재회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農村歲時記』가 이러한 서사구조와 원리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사전개 과정이나 주제의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리라 보여진다. 인용문 (2)에 그러한 전조가 드러나 있다.

인용문 (2)는 영선이 아버지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대목이다. 영선은 아버지의 부재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가 아버지의 거처를 캐내려는 “혼병 앞잡이”의 존재를 자각하게 된다. 여기에서 “아-나 가르켜 주어!”라는 영선의 각오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는 유충렬의 이야기”와 오버랩되면서 영선의 의식에 변화를 예고한다. 그것은 영선이 부재하는 아버지를 막연하게 그리워하는 감상적 차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현실에 대한 인식과 저항의식을 어렴풋이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선의 인식의 변모과정은 성장소설의 주인공과 서사적 특성을 닮아 있다.

김정환은 『農村歲時記』에서 당대 『유충렬전』의 시의성과 맥락적 의미를 이끌어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충렬전』은 『農村歲時記』의 시대적 배경인 1922년 당시 『춘향전』, 『조웅전』과 더불어 널리 읽혔던 소설이다.³⁹⁾ 일제강점기 민중들이 현실적 불만과 불안을 상상적 세계 속에서나마 위무하고자 했던 까닭과 연관된다.⁴⁰⁾ 그러니까 독자들은 소설적 재미를 통해 위안과 저항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겠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당대 민중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주체가 영선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가 민족적 현실에 대한 자각을 토대로 희망을 가져다주기를 바랐던 맥락과 맞닿아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성장소설의 상상력의 측면을 고려할 때 낭만주의적 현실도피에 빠질 위험이 있다. 성장소설은 장년의 위치에서 성장기의 자기 체험 세계를 회상하기 때문에 상상력의 긴장감을 약화시킨다. 그러한 상상력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둔감할 경우 현실을 위무하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높

39)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2003, 64~76쪽 참조.

40) 고소설의 통속화 과정을 고려할 때 『유충렬전』은 현실세계에서 고통받는 하층민들의 설움과 그러한 현실이 극복되기를 꿈꾸는 낭만적 소망이 그들의 운명론적 세계관의 본질적 측면에 부합한 작품이다. 박일용, 『〈유충렬전〉의 서사구조와 소설사적 의미 재론』, 『고전문학연구』 제8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8, 280면과 강상순, 앞의 글, 130쪽, 그리고 이상구, 『〈유충렬전〉의 갈등구조와 현실 인식』, 『어문논집』 24집, 고려대 국어국문학회, 1995, 88~91쪽 참조.

다.⁴¹⁾ 그러니까 김정환이 맥락화한 영선의 존재는 양가적일 수 있다. 저항의식을 고취하며 희망을 선사하는 것은 새로운 세대가 민족 현실을 직시하고 저항의식을 갖게 되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자칫 그러한 현실을 위무하거나 도피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선은 김정환 자신을 모델로 삼은 인물이다. 그렇기에 작가가 영선의 내면적인 성장 과정을 지속적으로 그려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農村歲時記』는 자적적인 성장소설이라는 성격 자체가 작가의 창작을 힘겹게 하는 원인으로 충분히 작용하고 있었다 하겠다.

2. 이원적 대립 구조와 서술자의 권위적 목소리

김정환의 소설 대부분은 “체제나 거기에 기생하는 자들의 억압과 수탈, 그리고 민중의 각성과 저항”⁴²⁾이 표출되어 있다. 그것은 치열한 작가의식의 소산으로 높이 평가되기도 하지만 서사적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평면적이고 도식적인 인물과 사건, 단순한 구성과 선악의 도식성, 주석적 서술과 진술 등이 체험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소재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작가의 글쓰기 방식과도 연관하여 작가의 한계로 많이 지적되어 왔다.⁴³⁾ 이 점에 더해 강진호는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작가의 창작활동이 독창적 구성력이나 과감한 상상력과 길항하지 못해 현실의 총체성을 드러내는 데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한다.⁴⁴⁾ 이기인 또한 작가의 문제의식은 분명하지만 충분한 형상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생경하게 제시된다고 지적한다.⁴⁵⁾ 『사하촌』과 『산거족』을 제외하

41) 신희교, 『성장소설과 상상력의 빈곤』, 『현대소설연구』 제16호, 1997, 67쪽.

42) 김종철, 앞의 글, 102쪽.

43) 이것은 소설시학의 측면에서 접근한 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글은 다음과 같다. 김영화, 『요산 소설론』, 『어문논집』 제19·20 합병호, 고려대학교 국문학회, 1977;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9; 최동호, 『역사에의 증언과 삶의 진실』, 『광장』, 1984.8; 김영년, 『김정환 소설연구』, 청주대 석사학위논문, 1986; 조진기, 『김정환 소설연구』, 『가라문화』 제7집, 경남대 가라문화연구소, 1989.

44) 강진호, 『근대화의 부정성과 본원적 인간—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김정환—대쪽 같은 삶과 문학』, 강진호 엮음, 새미, 2002, 142~144쪽.

45) 이기인, 『김정환 소설의 심미성과 작가 의식』, 『김정환—대쪽 같은 삶과 문학』,

면 사회적 구조적 모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대로 형상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화된 대립적 상황 설정에 비해 문제 의식을 매개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없다는 점, 개인의 영웅적 면모를 초점화하여 사회의 단면을 부각시키는 고발과 폭로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엿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김정환 소설은 치열한 리얼리즘 정신을 우위에 뒀으로써 건조한 소설 문법과 형상화 방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김정환 소설의 서사적 한계는 전후기뿐만 아니라 1950년대 창작활동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1951년 발표된 『병원에서는』은 부산의 육군병원에 입원 중인 상이군인의 상황을 통해 일부 부유층의 비도덕적 행위를, 1956년 발표된 『액년』은 가난하고 외로운 해녀 차돌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 타락한 선거풍토를 각각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형상화 방식에 있어서 전자는 비판의 초점이 불분명하고 후자는 죽음의 근거가 불확실하다. 이러한 한계들은 같은 시기에 발표된 『農村歲時記』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 소설은 배태되는 갈등의 구조화 방식과 그것을 통어하는 서술자의 성격이 작품의 향방을 이미 판가름하고 있기 때문이다.

『農村歲時記』에서 갈등은 1922년을 전후한 시대적 상황에서 배태된다. 1922년 즈음은 일제가 3·1운동 후 문화정책을 통해 회유하는 한편 토지조사사업을 벌여 식민지 수탈을 본격화했던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행길에서 멀리 떨어진 으스스한 산골짜기에 돌아앉아” 있는 폐쇄적 공간 밤식골에도 영향을 끼친다. 밤식골의 원로인 혼암의 가족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고단한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3·1운동 후 아들은 도피생활을 하고, 옥고를 치룬 혼암은 시회(詩會) 대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며 요시찰 대상으로 감시를 받는다. 이러한 혼암 가족의 삶은 식민지 조선인의 억압적 상황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 지배와 피지배의 대립적 상황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하겠다.

표면화된 갈등의 전조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하나가 식민지 근대화에 대한 유학자들의 대립된 태도이다. 식민지적 근대화의 물결이 갈등으로 표면화되는 것은 단발과 신식학교의 등장이다. 단발과 신식학교의 등장은 근대적 문화를 표상하는데, 그것은 전통적인 유교 문화와 대립된다. 전통적 유교주의에서 본

다면 단발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외양을, 신식학교는 제도와 사상체계를 깨뜨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밤식골의 유학자로 대표되는 혼암과 남파는 이러한 근대적 문화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과 태도를 드러내면서 대립한다. 혼암은 단발과 신식교육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설날 조상의 무덤 앞에서 스스로 단발하고 신식학교에 손자를 자청해서 보낸다. 이러한 그의 행위는 개명(開明)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근거에는 “마음만 독하게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다”⁴⁶⁾는 생각이 깔려 있다. 즉 혼암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을 개명(開明)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파의 입장은 다르다. 남파는 학문이 깊은 한말 유학자 혼암의 일련의 행위를 전통적 유교주의에 대한 훼손로 여긴다. 유학이 조상을 숭배하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에서 출발하는 것이기에 혼암의 행위는 남파에게 이해 불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혼암이 밤식골의 원로로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본보기로 삼아 따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파의 우려는 현실화되고 손자인 순태마저도 새로운 물결을 따른다. 이렇게 혼암과 남파의 행위는 식민지 근대화에 대한 유학자들의 입장과 태도 차이에 기인한 ‘근대지향성 : 전통지향성’의 대립 구조를 보인다. 여기에서 대립항들을 통어하는 서술자의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할배! 고무신은 눈에도 까딱없지요?』

『암, 그렇고 말고!』

혼암노인은 손자의 기쁨을 기뻐하였다. 그들은 고무신이 가지는 정책적인 의미 같은 것은 응당 깊이 생각지 못했겠지만, 설혹 그것이 三·一 이후 이 땅을 급격히 식민지화시킨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적 축수(觸手)였던 것을 짐작했더라도, 그날 밤의 그들의 기쁨에는 그다지 큰 영향은 없었을 것이다. 영선이는 어머니 곁으로 가서도, 역시 같은 말을 되풀이하였다. 어서 고무신을 신고 눈 위를 뛰어보고 싶은 생각에 잠이 더욱 안 왔다.⁴⁷⁾

1921년 설날 그믐날 영선은 혼암이 사준 고무신을 신을 생각에 잠을 설칠 만큼 기뻐하고 혼암 또한 “손자의 기쁨을 기뻐한”다. 그러나 서술자는 “고무신이

46) 『慶南公論』 제31호, 72쪽.

47) 『慶南公論』 제28호, 107쪽.

가지는 정책적 의의”에 주목해야 한다며 소설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고무신은 새로운 문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적 축수”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서술자는 일제 제국주의의 책략적 의미를 간과하지 못한 채 식민지 근대화를 즉흥적이고 감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작중인물들뿐 아니라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을 긍정적 인물 혼암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은 전지적 서술자가 식민지 현실에 대한 통찰력과 예지력을 갖춘 인물을 찾기 힘들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작중인물들의 행위 전반을 통어할 뿐 아니라 논평을 통해 서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것은 김정한 소설의 서술자 대부분의 특성이기도 하다. 김정한 소설의 서술자는 독자로 하여금 작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러한 서술자가 소설 내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논평을 가하고 있다.⁴⁸⁾ 이러한 서술자는 작가가 소설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 소설에서도 작가와 다를 바 없는 서술자가 권위적인 전지성을 내세워 자신의 비판적 시각을 일반화하고 있다. 작가 김정한은 식민지 근대화라는 “세시(歲時)”를 갈등의 한 축으로 삼아 식민지 민족 현실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서술자의 권위적 목소리는 독자가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를 그만큼 줄어든다. 특히 작가 서술자가 이원적인 갈등 구조에서 약자의 입장에 밀착되어 드러날 때 그것은 서술자에 대한 독자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 소설의 형상화방식은 유형화되고 의미의 향방도 경직되어 간다. 이러한 전조는 신작로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둘러싼 갈등에서 잘 드러난다.

김정한 소설에서 토지는 한정된 생산수단을 둘러싼 생산관계의 모순을 보여주는 데 효과적인 제재로 자주 사용해왔다. ‘지주-마름-소작인’이라는 이중적인 착취와 억압 관계는 앞선 갈등과 달리 인물을 유형화하고 갈등을 이원화시킨다. 그러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해자와 피해자, 선한 자와 악한 자라는 도식적이고 이원적인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 갈등은 혼암이 신작로 건설을 추

48) 김준현, 「이원적 대립 구조와 의미의 명정성—김정한論」, 『김정한—대쪽 같은 삶과 문학』, 강진호 엮음, 새미, 2002, 169~174쪽 참조.

진하는 과정에서 전경화되는데, 이때 남파가 외방지주 고참봉의 마름이며 둘째 아들이 순사라는 새로운 사실이 제공된다. 여기에서 전통적 유교주의를 고수하며 권위적인 태도를 보여 온 남파의 이중적인 면모가 여실하게 드러난다. 일제 제국주의에 동조하는 순사 아들을 두었으면서 식민지 근대화에는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권위는 마을의 서당 선생보다는 마름이라는 지위에 기인한다. 신작로 건설은 이러한 남파가 소작인인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편드는 혼암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빨리 이고(이것) 본테대로 해라! 누가 이리 하랴가도노? 나쁜 놈도리 아 니가!」

왜순검은 「빠꼼참봉」의 눈을 가리키며 고래고래 소리를 내질렀다. 아닌게 아니라, 보리갈이를 한 눈에 말목을 수두룩하게 쳐박고 아름드리 돌들을 어 슷비슷 굴러넣은 소위가 꽤 씹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는 마치 자기 자신이 어떤 모욕이라도 당한듯이 화를 내었다.

「빨리 빨리 해!」

왜순검은 일꾼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들볶았다. 지주 「빠꼼참봉」은 남파선생을 따라가고 다행히 그 자리에 없었으나, 역군들은 거드름스럽게 덤비는 순검보다도, 그러한 「빠꼼이나」 남파가 알미웠다. 동시에, 순검이란 것은 요만치도 백성을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지주만을 싸주는—그러 기 위해서 시퍼런 환도를 차고 다니는 것이라고, 그때부터 「밤싹골」 사람들은 경험해서 알았다.⁴⁹⁾

인용문은 왜순검의 강요로 마을 사람들이 고참봉의 눈을 정리하는 장면이다. 신작로 건설에 필요한 눈을 내놓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은 마을 사람들이 고참 봉의 눈에 “말목을 수두룩하게 쳐박고 아름드리 돌들을 어스듯비슷 굴러넣”었고, 이 사실을 남파가 고참봉에게 알린 후 발생한 일이다. 마을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밤싹골에서도 오래 전부터 지주와 소작인의 계급적 갈등이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말목을 “남파선생이 부치는 눈에는 더욱 깊이 쳐박”을 만큼 마을 사람들의 불만의 골이 깊은 것이다. “돈이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지주 고참봉의 세부림과 엄평소리”와 마름인 “남파의 비뜨러진 외굴 성미”, 그리고 “남파의 둘째 아들이 읍에서 순경노릇을 하고있다는” 사실이 마을 사람들을

49) 『慶南公論』 제32호, 153~154쪽.

더욱 옥죄고 있었다 하겠다. 더욱이 토지를 둘러싼 생산관계의 모순과 갈등은 또 다른 지배계급, 그러니까 식민지 통치자들을 정점으로 보다 심화되고 있다. “왜순검”으로 대표되는 식민 통치자는 “요만치도 백성을 생각해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지주만을 싸주”며 “시퍼런 환도”로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혼암이 추진한 신작로 건설은 일제강점기 토지를 둘러싼 계급간의 갈등구조를 첨예하게 드러낸다. ‘식민지 통치자→지주→마름’의 서열이 지배계급 속에 존재하지만, 소작인에 불과한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삼중의 고난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서당 선생이자 마름인 남파가 아닌 자작농인 혼암에게 향하고 그를 마을의 원로로 떠받드는 것이다. 여기에서 마을 사람들의 심리 이면에는 서술자의 의도가 결합되어 있다. 서술자는 약자의 입장에 밀착함으로써 서술자에 대한 독자의 신뢰감은 높이고 나아가 작가의 의도를 명징하게 드러내려 했다. 더욱이 이원적인 대립 구조가 인물을 유형화시키고 도덕적 가치개념과 결합함으로써 작가의 비판의식은 보다 두드러진다. 혼암이 왜순검에게 연행되는 순간 극적 효과와 의미가 배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렇듯 토지를 둘러싼 갈등은 민족간, 이념간, 계급간의 반목이 유형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개념과 결합하여 앞으로 전개될 서사에서 보다 이원적으로 구조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물(罟)』 이래 김정환이 한결같이 강조해왔던 농토분쟁은 이 소설에서도 뚜렷한 갈등으로 발전할 것임을 예견하게 한다. 작가 서술자는 한국사회의 근대화가 식민지적 근대성과 천민자본주의적 성격 등을 배태하게 된 연원을 ‘농토’를 둘러싼 민족간, 이념간, 세대간의 갈등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적 대립 구조와 서술자의 권위적인 목소리는 『農村歲時記』의 창작을 견인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발단 부분에서 이미 작가의 현실인식의 태도와 세계관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을 뿐 아니라 작품의 구조화 방식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장편소설에서 추구하는 다성성의 세계를 작가가 펼쳐내기가 그만큼 힘들 것임을 시사한다. 결국 작가의 강렬한 주제의식이 다양한 형식적 실험과 다성적인 목소리를 수렴하는 장편소설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만 것이라 하겠다.

IV. 마무리

『農村歲時記』는 요산 김정한의 미완성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김정한이 스스로 절필기라 규정했던 시기인 1955년에서 1956년까지 경상남도청 기관지인 『慶南公論』에 6회(제26호~제32호)에 걸쳐 연재되었다. 김정한은 이주홍의 권유로 『慶南公論』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農村歲時記』를 통해 소설창작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으리라 여겨진다. 주지하다시피 미완성 작품은 연구자들에게 여러 가지 추측과 의문점을 남겨 놓는다. 그러나 그것은 여타의 작품들과 연계해서 재구되었을 때 새로운 가능성을 드러낼 수 있다. 『農村歲時記』는 그러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農村歲時記』는 자전적 성장소설의 면모를 지닌다. 김정한의 실제 가계(家系)의 인물들이 주요한 작중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자전적 성격이 짙다. 혼암노인은 부친을, 한실택은 모친을, 남파선생은 증조부를, 그리고 영선은 김정한 자신을 모델로 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소설의 가능성은 『유충렬전』이라는 라이트 모티프를 영선에게 초점화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유충렬전』은 영선이 당면한 현실에 대한 자각과 저항의식을 싹틔우는 반복적 제재이자 모티프이다. 나아가 그것은 서사적 향방을 영선에게 두어 그의 성장과정의 수난과 극복을 전경화할 것을 암시한다. 그만큼 『農村歲時記』는 소설창작의 소재를 상상만으로 구축하기보다는 현실성을 토대로 하는 김정한의 창작 관행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소설이라 할 만하다. 『그물(罟)』에서부터 『거적대기』에 이르기까지 김정한의 소설세계는 작가 자신의 직간접적인 체험에 상당 부분 빚지고 있다. 자신의 가족사적 상황과 소년기를 두루 펼쳐 보이며 새로운 긴장의 국면을 이끌어낼 토대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소년기 김정한의 삶과 의식세계를 엿보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둘째, 『農村歲時記』 연재 6회분은 장편소설의 발단 부분에 해당되었다. 소설의 발단은 앞으로 작품이 전개되어 나갈 바탕으로서의 가징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소설의 본질적 원리인 갈등은 전조나 향방을 암시하는 데 그친다. 이 소설은 김정한 특유의 이원적 대립이 구조화되어 있었다. 일제강점기 상황을 대

변한 지배와 피지배 대립구조를 전제로 한 표면적인 갈등은 혼암과 남파로 대표되는 식민지 조선인 내부에서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식민지적 근대화에 대한 ‘근대지향적 : 전통지향적’이라는 대립이 토지를 둘러싼 생산관계의 모순과 함께 겹쳐 드러났다. 이러한 대립 양상은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구조화되면서 유형화된 도덕적 가치개념과 결합되어 있었다.

셋째, 『農村歲時記』는 서술자의 권위적인 목소리를 빌어 식민지 시대현실에 대한 통찰과 비판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서술자는 친밀한 작중인물들의 행위조차 비판적으로 재단함으로써 권위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색채를 농후하게 드러내었다. 그것은 김정환이 자신의 세계관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특유의 서술 방식이라 할 만하였다. 장편소설의 발단에 불과하나 『農村歲時記』의 서술자는 식민지적 근대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빛어지는 갈등과 반목을 거시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을 상실한 지식인들을 통해 드러내었다.

넷째, 『歲時記』의 의미향은 1921년에서 1923년 식민지 조선사회의 변화를 담고 있었다. 그 변화는 전통적 유교사회였던 조선이 식민지적 근대화를 거치는 과정이었다. 한국사회의 근대화가 식민지적 근대성과 천민자본주의적 성격 등을 배태하게 된 연원을 ‘농토’를 둘러싼 민족간, 이념간, 세대간의 갈등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물(罟)』 이래 김정환이 한결같이 강조해왔던 농토분쟁은 이 소설에서도 뚜렷한 갈등으로 발전할 것임을 예견하게 하였다.

다섯째, 김정환 소설이 대부분 현실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비록 장편소설의 서두에 해당하지만 과거세계로 눈을 돌린 『農村歲時記』는 상당히 특이한 소설이다. 김정환이 줄곧 관심을 기울여 왔던 토지를 둘러싼 갈등이 6회 연재분에서 시작될 조짐을 드러내고 있지만, 작가 특유의 리얼리즘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작품이다. 1956년 첫 창작집 『낙일홍』을 엮어 낼 무렵, 자전적 성장소설을 장편으로 기획한 작가의 의도는 무엇이였을까? 광복기와 한국전쟁을 거쳐 1950년대의 몇몇 단편들과 1966년 『모래톱 이야기』에 이르는 긴 흐름의 중간에 놓인 이 소설을 통해 요산이 지녔던 의식세계의 한 편린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農村歲時記』가 자전적 체험을 용해시킨 발단부에서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자전적 성장소설을 선택한 작가 자신의 양가적 심리와 창작활동이 지닌 한계가 맞물려 있었다. 연재가 지속되었더라면 김정환의 절필기간의 창작

활동이나 문단 복귀를 둘러싼 의구심을 해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을 법한 작품이 자전적 성장소설인 『農村歲時記』이기 때문이다.

비록 미완성에 그치지 않았지만, 김정한의 소설 세계에서 『農村歲時記』가 지니는 의의를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단편소설 위주로 창작에 임했던 김정한이 처음으로 시도한 장편소설이라는 점, 그리고 김정한의 여느 소설과 달리 유년기의 자전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나아가 경남 지역말을 효과적으로 부러뜨으로써 김정한 특유의 소설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남·부산 지역문학의 뚜렷한 성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주제어 : 김정한, 『농촌세시기』, 『경남공론』, 절필, 자전적 성장소설, 근대화, 이원적 대립구조, 권위적 서술자, 경남·부산 지역문학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정한 대담취재, 『弱者의 설움은 무엇인가?』, 『文學思想』~1973년 10월호.
김정한, 『나의 當選時代-檢閱이 무서울 때』, 『朝鮮日報』~1954.12.6. 4쪽.
김정한, 『나의 文學的 回顧-반항의 물결 속에서』, 『文學』~1966년 9월호(1권 5호), 문학사, 1966.
김정한, 『樂山 作品目錄』, 요산생가소장.
김정한, 『洛東江의 과수군』, 한길사, 1978.
김정한, 『사람답게 살아가라』, 동보서적, 2000.
김정한, 『황량한 들판에서』, 황토, 1989.
김정한, 『農村歲時記』 1회~6회, 『慶南公論』~26호~32호(1955~1956).
지역문학 발굴자료, 『農村歲時記』, 『지역문학연구』~제9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5.
요산생가소장, 『農村歲時記』 육필원고 연재 4회분.

2. 이차 자료

- 강상순, 『영웅소설의 형성과 변모양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1, 1~153쪽.
강진호, 『근대화의 부정성과 본원적 인간』, 『김정한-대쪽 같은 삶과 문학』, 강진호 엮음, 새미, 2002, 129~144쪽.
고 은,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수업시대』의 구성에 있어서 형성소설과 자전소설의 관계 및 이로니의 기능』, 『독일문학』~제55권, 한국독어독문학회, 1995, 1~21쪽.
慶南年鑑編纂會, 『慶南年鑑』~창간호, 경남연감편찬회, 1954, 129쪽.
慶南年鑑編纂會, 『慶南年鑑』~제2호, 경남연감편찬회, 1955, 50쪽.
경상남도, 『경남문예총람』, 경남문예총람편찬위원회, 1993, 101~141쪽.
김경원, 『리얼리즘 문학의 공간성과 역사성-김정한의 196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작가연구』~제4호, 새미, 1997, 50~66쪽.
김기호, 『金廷漢 초기소설과 그의 전향에 대한 고찰-작중인물의 현실대응의

- 변모를 중심으로, 『우리어문학연구』 제3집,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과, 1991, 217~236쪽.
-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154~190쪽.
- 김정자, 『모티프 구조로 본 金廷漢·李周洪 小說의 文體的 特性』, 『어문교육논집』 제8집, 부산대 국어교육과, 1984, 253~276쪽.
- 김중철, 『저항과 인간해방의 리얼리즘』, 『韓國文學의 現段階』 Ⅲ, 백낙청·염무웅 엮음, 창작과비평사, 1984, 82~120쪽.
- 김준현, 『이원적 대립구조와 의미의 명징성』, 『김정환-대쪽 같은 삶과 문학』, 강진호 엮음, 새미, 2002, 167~186쪽.
- 김중하, 『인간 김정한론』, 『창작과비평』 1997년 봄호(통권 95호), 218~227쪽.
- 김태기, 『요산 김정한 소설세계와 이야기방식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250쪽.
- 박덕근, 『金廷漢의 小說研究』,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80, 1~87쪽.
- 박일용, 『英雄小說의 類型變異와 그 小說史의 意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1~146쪽.
- 박태일, 『김정환의 희곡 『隣家誌』 연구』, 『경남·부산 지역문학 연구』 I, 청동거울, 2004, 126~164쪽.
- 배경열, 『김정환 초기소설의 특질』, 『韓國言語文學』 제47집, 한국어어문학회, 2001, 299~325쪽.
-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1~391쪽.
- 서인석, 『古代小說에 있어서의 ‘우연성’ 문제』, 『선청어문』 제10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79, 139~167쪽.
- 성형경, 『韓國小說의 構造와 實相』,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246~279쪽.
- 손윤권, 『박완서 자전소설(自傳小說) 연구-상호텍스트안에서 담화가 변모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2003, 1~165쪽.
- 신희교, 『성장소설과 상상력의 빈곤』, 『현대소설연구』 제16호, 1997, 59~70쪽.
- 요산 김정한 선생 고회기념사업회, 『樂山 文學과 人生』, 오늘의 문학사, 1978, 1~205쪽.
- 이강은, 『자전소설의 ‘나’와 작가의 차이와 갈등』, 『러시아소비에트문학』 제9권,

- 한국러시아문학회, 1998, 84~115쪽.
- 이기인, 『김정한 소설의 심미성과 작가의식』, 『작가연구』~제4호, 새미, 1997, 67~89쪽.
- 이상구, 『<유충렬전>의 갈등구조와 현실인식』, 『어문논집』~제34집,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5, 57~93쪽.
- 이상설, 『英雄小說의 의미구조연구-홍길동, 유충렬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집』~제2권, 성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181~193쪽.
- 이상택·성찬경 엮음, 『韓國古典小說研究』, 새문사, 1988, 336~375쪽.
- 이순옥, 『1950년대 김정한의 미발굴 장편소설 『農村歲時記』』, 『지역문학연구』~제9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4, 232~241쪽.
- 정승옥, 『문학으로서의 자서전Ⅲ』, 『강원인문논총』~제10집,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02, 105~120쪽.
- 조갑상, 『김정한 소설 연구』, 동아대학교 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1~123쪽.
- 조갑상, 『김정한의 『獄中回甲』과 『설날』 연구』, 『용언어문논집』~제5집, 경성대 국문과, 1991, 53~69쪽.
- 조갑상, 『김정한 소설의 話者와 視點문제』, 『어문집』~제16집, 경성대, 1995, 7~22쪽.
- 조갑상, 『시대의 질곡과 한 인간의 명정함-인간 김정한』, 『작가연구』~제4호, 새미, 1997, 90~118쪽.
- 조병훈·이상구, 『<유충렬전> 작품구조와 역사적 성격』, 『어학연구』~제12권, 순천대 어학연구소, 2001, 73~87쪽.
- 조정래, 『현실을 보는 눈과 역사를 보는 눈-김정한의 초기소설연구』, 『작가연구』~제4호, 새미, 1997, 26~49쪽.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64~76쪽.
- 최원식, 『90년대에 다시 읽는 요산(樂山)』, 『작가연구』~제4호, 새미, 1997, 8~25쪽.
- 최원식, 『그 편안함 뒤에 대쪽』, 『민족문학사연구』~제3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3, 284~297쪽.
- 한국문학연구회, 『한국문학과 민족주의』, 국학자료원, 2000, 1~369쪽.
- 韓國雜誌協會, 『韓國雜誌總攬-韓國雜誌70年史』,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1972, 175쪽.
- 필립 르죈, 『자서전의 규약』, 윤진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8, 1~69쪽.

<Abstract>

Study on Kim Jeong-Han's Unfinished Novel, *Nongchonsesigi*

Choi, Mi-Jin

Nongchonsesigi is Yosan Kim Jeong-Han's unfinished novel. This novel was serialized in the bulletin of Gyeongsangnamdochung, *Gyeongnamgongron* 6 times(vol.26~vol.32) from 1955 until 1956, which period Kim Jeong-Han himself called that of putting down his pen. It is possible that Kim Jeong-Han took part in *Gyeongnamgongron* with the encouragement of Lee Joo-Hong, and it is considered that he tried to find new directions of the creative writing through *Nongchonsesigi*.

First, *Nongchonsesigi* has features of autobiographical bildungsroman, which sets up Kim Jeong-Han's actual family members as its major characters. Hon-am, the wife of Han-sil, Nam-pa, and Young-sun shape his father, mother, grand father, and himself respectively. We can find such possibility of bildungsroman in bringing the focus of the leitmotif of *Yuchungryeoljeon* on Young-sun. *Yuchungryeoljeon* is a repeated theme and motif which makes Young-sun develop the awareness and the sense of resistance of a present reality.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Young-sun's sufferings and subjugation in his growth process will be viewed completely by bringing the focus of the narrative direction into him.

Second, the six series of *Nongchonsesigi* are the beginning of the novel. The beginning of a novel means the suggestion about a premonitory sign or direction of conflict because the beginning shows suppositions as the base of development of a novel. This novel structuralizes Kim Jeong-Han's characteristic dual confrontation in the middle story. "A ruler of Japanese

imperialism and a person from colonial Choson” shows the opposing structure which presents the situations in Japanese colonial ages. But the foreboding of the superficial conflict is presented between Hon-am and Nam-pa who are both from colonial Choson.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modern-ages-oriented and the tradition-oriented attitudes” toward the colonial modernization is revealed with the conflict of production relations concerning lands. It suggests that such aspect of confrontation will be structuralized in the middle story with the periodic situations in Japanese colonial ages.

Third, Kim Jeong-Han shows the insight and critical attitudes toward the periodic situations in the colonial ages using the potent point of view. The writer is controlling the degree of intimacy that readers feel by keeping the distance with characters. In addition, Hon-am’s intimacy is outstanding, but the writer is criticizing the limit of his behavior directly. It can be said that such features of Kim’s writing is his peculiar writing style that presents his own viewpoint of the world.

Fourth, in respect that most of Kim’s novels deal with real problems of those days, *Nongchonsesigi* is a very original novel which pays attention to the past world although this novel has just the beginning. This novel shows signs of a conflict about lands which the writer always pays attention to, but it keeps its distance with his peculiar realism.

Nongchonsesigi has important meanings in Kim’s world of novel although the novel is unfinished. First, this novel is related with a sensible discourse or putting down his pen. Second, this novel is the first one that Kim tried who created short stories mainly. Third, it shows his autobiographical elements prominently in contrast with his other works. Furthermore, in respect that he commands his peculiar language by using a Gyeongnam dialect, we can regard the novel as an apparent result of the regional literature in Gyeongnam and Busan.

Key Words : Kim, Jeong-Han, *Nongchonsesigi*, Gyeongnamgongron, Giving up Writing, Autobiographical Bildungsroman, Modernization, the Middle Story Conflict Structure, Authoritative Narrator, Kyungnam-Busan Regional Literature.